

한승혁, KIA 파이어볼러 계보 잇는다

(강속구 투수)



153km 총알투



부상 탈출 후 자신감...SK 상대 첫 승

양현종·어센시오도 강속구 '짱짱'

150km는 던져야 명함을 내밀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KIA는 물론 한국을 대표했던 '파이어볼러' 한기주를 필두로 윤석민·곽정철·이범석·임준혁·박성호가 150km가 넘는 공을 뿌려 왔다. 지금은 남의 팀 선수가 된 전병두(SK)와 올 시즌 팀의 에이스로 우뚝 선 양현종도 지옥에서도 데려온다는 좌완 파이어볼러로 자리를 지키며, KIA는 '강속구 군단'으로 명성을 날렸다.

부상으로 자취를 감췄던 '강속구 군단'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 우완 한승혁과 좌완 양현종이 있다.

미완의 대기었던 한승혁은 두 차례 선발 등판과 함께 팀 최고의 총알투 사나이로 급부상했다.

지난 15일 한화전에서 152km를 찍었던 한승혁은 20일 SK전에서는 153km의 공을 던지며 자신의 최고 스피드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 154km를 넘기기도 했지만 공식 기록은 아니었다.

이날 한승혁은 알고도 치지 못하는 총알투를 연달아 뿌리며 SK를 상대로 선발 첫 승을 수확했다. 부상에서 벗어나면서 스피드가 발휘되는 것이다. 강속구 투수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강속구 비결은 '타고난다'. 한승혁은 덕수고 재학시절에도 151km를 찍으며 메이저리그의 관심을 끌기도 했던 타고난 파이어볼러. 부상에서 탈출하면서 공에 속도가 붙었다.

한승혁은 "초종고 때도 또래보다는 공이 빨랐다. 타고나는 게 맞는 거 같다. 무엇보다

그동안 몸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아프지 않고 공을 던지다 보니 스피드가 나오는 것 같다. 특별히 의식하고 던지는 것은 아닌데 아프지 않고 밸런스가 맞으면서 스피드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감까지 더한 한승혁은 29일 SK전을 위해 총알투를 장전하고 있다.

강속구 하면 양현종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18일 SK 김광현과의 맞대결에서 패전 투수가 되기는 했지만 양현종은 예술투를 보여줬다. 커브, 슬라이더 등의 변화구와 최고 구속 150km의 직구를 던지며 사람들의 눈길을 뺏았다.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양현종의 직구는 묵직한 볼끝이 일품이다. 보는 이들의 가슴을 뺨 뚫리게 하는 명품 직구다.

어센시오도 종종 강속구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주무기인 체인지업 위주의 피칭을 하고 있지만 150km 중반의 강속구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다. 초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송은범도 강속구파다.

150km에 육박하는 공으로 스피드 업에 힘을 보태는 이들이 있다. 강속구 군단의 일원이었던 임준혁이 140km 중·후반대의 직구를 바탕으로 자리 굳히기에 나서고 있고, 좌완 심동섭도 부상을 털고 1군에 재합류했다. 심동섭은 2군 경기에서도 140km 중반의 스피드를 기록하며 이상무를 의쳤다. 곽정철의 원조 볼직구는 6월 중순께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경기 시작 하자마자 '딱!'

추신수, 텍사스전 시즌 2호 홈런...7회 발목부상 교체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가 시즌 2호 홈런을 쳤다. 추신수는 22일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의 오글랜드 콜리시움에서 열린 오글랜드 에슬레틱스와 원정경기에 1번·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1회초 선두타자 홈런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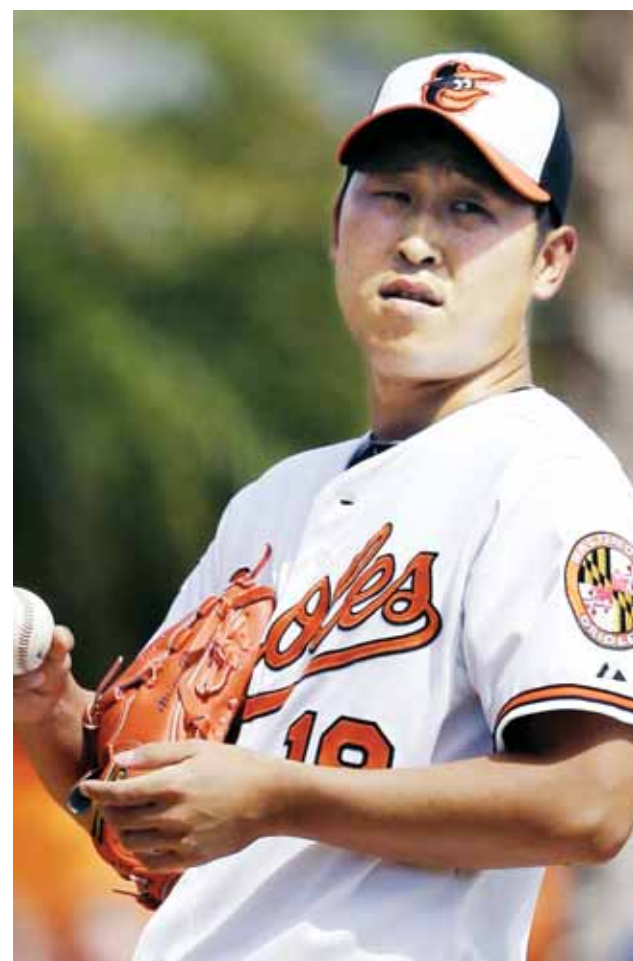
오글랜드 우완 던 스트레일리와의 맞선 추신수는 볼 카운트 2B-2S에서 142km짜리 투심 패스트볼을 공략해 우월 솔로포를 쏘아 올렸다. 지난 18일 시애틀 매리너스를 상대로 텍사스 이적 후 첫 아치를 그린 추신수는 4일 만에 다시 홈런포를 가동했다.

개인 통산 홈런은 106개로 늘었고 시즌 타점은 7개로 불어났다. 추신수는 이날 3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 1볼넷으로 경기를 마쳤다.

이를 만에 안타 생산을 재개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314(70타수 22안타)로 조금 올랐다. 출루율도 0.432로 높아졌다.

첫 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스트레일리의 투심이 높게 형성되자 우측 펜스 위쪽에 쏘는 홈런을 만들어냈다. 3회초 1사 2루에서는 볼카운트 3-1에서 스트레일리의 바깥쪽으로 흘러나간 포심을 참아내 볼넷으로 출루했다.

관련 내야땅볼이 나온 7회 1루 베이스를 밟는 과정에서 왼쪽 발목에 이상을 느낀 추신수는 7회말 수비 때 마이클 초이스로 교체됐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큰 이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좀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23일 자기공명영상(MRI)를 촬영할 예정이다. 텍사스는 4-3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송곳투로 첫 승 노크

윤석민, 오늘 마이너리그 등판

상승세의 윤석민(볼티모어)이 빅리그를 두드린다.

볼티모어 산하 트리플 A 노포크 타이즈에서 뛰고 있는 윤석민이 23일 오후 11시35분(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리하이밸리 코카콜라 파크에서 열리는 리하이밸리와의 아이너피그스(필라델피아 산하)와의 원정경기에 출전한다.

윤석민은 네 번째 출격에서 배리 엔라이트와 마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빅리그를 향한 어필 무대이자 첫 승 도전이다.

지난 9일 그윈넷 브레이브스(애틀랜타 산하)를 상대로 미국 데뷔전을 치른 윤석민은 앞선 세 차례 등판에서 9.49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첫 등판에서 2.1이닝 9실점, 최악의 피칭을 선보였지만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두 번째 등판에서 수비 도움을 받지 못하며 4.1이닝 4실점으로 2패를 기록한 윤석민은 세 번째 등판이었던 19일 더럽 볼스(탬파베이 산하)전에서는 5.2이닝 8피안타(1홈런) 4탈삼진 2실점(1자책점)의 쾌투를 선보였다.

팀이 0-3으로 지면서 시즌 3패째를 안았지만 한결 예리해진 변화구를 선보였고 직구 스피드도 91마일(147km)까지 끌어올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